

‘전일빌딩 245’로 떠나는 문화소풍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

공연·전시·강연·체험프로그램 등 다채

7월 주제 ‘미리 바캉스’...북토크쇼 등 진행

‘전일빌딩 245로 떠나는 문화소풍.’

지난 9일 토요일 오후. 폭염을 뚫고 시원한 실내 공간으로 들어서니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K팝에 맞춰 청소년 댄스 팀 ‘뉴에라’의 공연이 펼쳐지고,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공연을 관람중이다. 로비 이곳 저곳에 마련된 체험부스에서는 티라이트 캔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이고, 최순임 작가의 소녀 조각상도 시민들을 맞는다.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김단아(8)양과 엄마 황혜미씨는 종이액자로 가족사진을 만들며 즐거워했다. 황씨는 “프로그램에 먼저 다녀간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됐다”며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건물 입구에서는 플라마켓이 펼쳐졌고, 데스몬드 색소폰 quartet 연주도 이어졌다.

◇전일빌딩 245, 시민 곁으로

매주 토요일 전일빌딩 245에선 즐거운 문화난장이 펼쳐진다. ‘Connected spot(연결된 지점)-다시 꽃으로 피어’를 주제로 지난 5월 시작된 ‘전일빌딩 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은 전일빌딩 245가 코로나 19 이후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전일빌딩 245는 개관 후 아직은 시민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층 로비, 시민갤러리, 디지털정보도서관, 3-4층 강 의 공간, 옥상공간인 RF전일마루 등 전일빌딩 245 공간 곳곳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특징이다. ‘전일빌딩 245공간’과 시민들이 좀 더 밀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아트주와 2022전일빌딩245 문화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주최측은 문화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두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둘째·셋째 주는 플라마켓과 체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첫째·셋째주는 시그니처 공연과 토크쇼 등을 선보인다.

전일빌딩 245는 공간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다. 디지털 정보 도서관, 전시실, 전망좋은 카페 등이 눈길을 끌며 전일마루는 사진찍기 좋은 명소다. 또 5·18 역사공간(9~11층)은 한번쯤 찾아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도 좋다.



공연, 전시,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진 ‘전일빌딩 245 시민문화예술체험 특화프로그램’이 매주 토요일 전일빌딩 245 공간 곳곳에서 열린다.

8월 한달은 쉬어가며 9월부터는 245의 가장 매력적인 공간인 옥상 전일마루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태양 전일빌딩245사업단 총감독은 “세대와 세대, 과거와 현재, 예술과 사람이 연결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 문화 예술에 품당

더운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잘 돼 있는 실내 행사가 제일이다. 7월 행사 주제는 ‘미리 바캉스’로 전시·공연·체험·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브랜드 공연-바라는 바다’는 전일빌딩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으로 23일(오후 3시30분 1층 로비)에는 재즈그룹 리페이지의 무대가 마련된다. 16일에는 지역교류음악회로 퓨전국악그룹인 광주주의 ‘루트머지’와 서울의 ‘소리디디’이 합동 무대를 꾸민다. ‘버스킹 인 더 나잇’은 장르가 있는 소규모 버스킹 무대다. 23일에는 앙상블 우쿨렐레, 강하선(바이올린), 김지운(첼로), 오세주(피아노)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30일에는 무비버스킹이 열린다.

이 열린다.

‘내 생애 첫 전시’에는 김나리연 작가(15일까지 시민갤러리)가 초대됐으며 ‘전일 245전’에는 최순임 작가가 참여 ‘Bon Voyage-삶의 여행을 응원하는 인사’(8월15일까지)를 주제로 작품을 전시중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은 입소문이 났다. ‘명랑가족아트 놀이터 하하호호’에서는 모빌을 만들어 보는 ‘나만의 아트 세계 꿈지락’(23일)이 진행되며 16일에는 해나체험, 젤 캔들 만들기 등이 예정돼 있다. 그밖에 키링, 미니케이크 만들기(23일), 바캉스 가방, 여름 팔찌, 인센스 스틱 만들기(30일) 등도 대기중이다.

‘아트그린’은 신도원 작가, 핑크파마와 식물을 매개로 현대미술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는 인스타그램(@jeonil_building_245_), 블로그(blog.naver.com/jeonil245_)에서 예약 받는다.

한달에 한번 진행되는 대표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기억보관소 타자기 버스킹’은 작가 타라재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기억을 나누는 관객 참여형 토크 버스킹이다. 7월 행사는 16일(오후 2시) 열린다.

북콘서트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는 김호빈 작가와 정서연씨가 진행한다. 지난달에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함께 읽었고 16일(오후 3시 디지털정보도서관)에는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다양한 인물을 초청해 만나는 ‘전일 245 클래스’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등을 그린 웹툰작가 ‘무적핑크’ 초청강연(23일 오후 1시30분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열린다. ‘플레이 워드 무비’는 무성영화와 즉흥연주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16일(오후 5시)에는 ‘안전불감증’을 상영한다.

그밖에 ‘작가장터 245전’(20-31일 시민갤러리)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예술장터로 7월 전시(20-31일)에는 김주연 작가 등 13명이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성심 전 ‘오늘도 화양연화가 되자’

31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 갤러리

서양화가 지성심 작가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 1동 1층 CNUH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지역 작가를 초청,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오늘도 화양연화가 되자’를 주제로 모두 1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을 뜻하는 ‘화양연화’처럼 자신은 물론,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에 게도 모두 화양연화 같은 순간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서재 풍경을 담은 모습을 비롯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크레용, 붓대, 스다남은 매니큐어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 작가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수료 후 광주미술협회, 광양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광양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 광양사라실예술포 레지던스&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광양노인복지회관 미술심리상담 강사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나의 서재’

‘방방곡곡 문화공감’ 첫 무대 ‘웨딩보감’ 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첫 번째 공연인 창작무용극 ‘웨딩보감’(사진)이 관객을 찾아온다.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16일 오후 5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공연장.

서울시무용단 대표 연작 시리즈 ‘동무동락’의 세 번째 작품으로 한국 전통춤을 즐길 수 있도록 스토리와 메시지를 가미했다. 전통예술이 숨 쉬는 문화 놀이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주인공 ‘철수’와 ‘미미’의 인생전반 에피소드를 전통춤과 창작춤으로 표현했다. 무대에 오르는 전통춤은 태평무, 장고춤, 강강술래, 고풀이, 살풀이, 진쇠춤(터벌림), 사랑가, 탈춤, 한량무 등이 있다.

서울시무용단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무용단으로 84 LA 올림픽 폐막식, 90 북경 아시안 게임 예술축전 등 국제행사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 역할을 수행했다. 2008 한일관광교류의 해-고도 초청공연, 2009북유럽순회공연, 2011상하이국제아트페스티벌 등에 참가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3개 작품을 선정, 5280여만 원을 지원받



았다. 오는 8월 27일은 광주현대무용단의 ‘PO_START, 포스트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소외계층 무료이며 8세 이상 관람, 입장료 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족문학운동 선도 고 채광석 시인 추도식 12일 5·18국립묘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자유실천문인협회’(1984년)의 재장립과 1980년대 민족문학운동을 선도했던 고 채광석 선생(1948~1987·사진)의 추도식이 오는 12일 오후 4시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원 채광석 묘소 앞에서 열린다.

이번 추도식은 한국작가회의와 광주전남작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위원장은 윤재철 시인이 맡았다. 이에 앞서 고인은 지난 6월 10일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 받았다. 이번 추도식은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식까지 겸해 열려 의미가 깊다.

고인은 생전에 자유실천문인협회 총무간사 및 집행위원, 민족문화운동협의회 집행위원, 민통련 문화예술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에게는 “민족문학의 독전관”으로서 반독재투쟁에 정준을 바친 민주화운동가라는 평가가 따른다.

한편 한국작가회의는 창립 30주년을 맞은 지난 2004년 고인을 작가회의 ‘명예사무총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